

10월31일(월)/몬1:4~7

**제목: 부자가 되는 비결**

바울은 자존심 강하고 남에게 함부로 구걸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 편지에서는 너무나 간절히 구걸하고 있다. 빌레몬은 분명히 도움을 구하기 쉬운 사람이었다. 빌레몬은 소문이 좋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다는 소문이 바울이 있는 로마의 감옥까지 들렸다(4~5절). 빌레몬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활기를 띠워 주었다. 6절의 말씀은 번역이 까다롭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6절). 이 말의 뜻은 빌레몬의 그 나누어 주는 아량이 결국 빌레몬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뜻이다. 빌레몬의 그 나누어주는 그 넓은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말이다. 빌레몬은 나누어줌으로 얻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 만약에 우리가 아낌없이 남에게 나누어주면 우리의 소유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부족해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빌레몬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다.

11월1일(화)/몬1:8~22

**제목: 크리스찬은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본격적인 호소가 나온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기의 특별한 동지가 되었으므로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가 그런 귀중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11~13절). 바울은 자기를 동지로 여긴다면 그를 맞아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그가 잘못된 일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 책임을 자기에게 지우면 자기가 직접 갚겠다고 하였다(18~19절).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에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이 글을 썼다(21절). 크리스찬은 이렇게 과오를 범한 사람을 다시 영접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탈선한 사람들을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과오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며 그를 믿으려하지 않는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새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셨음을 확신함에도 이상하게 그에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자기도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어느날 건짐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고서 말이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우리는 함구하고 믿어야 한다.

11월2일(화)/몬1:23~25

**제목: 나의 이름이 기억될까요?**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로 편지를 끝맺는다. 여기서 에바브로라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함께 문안한다고 하였다(23~24절). 여기서 특별히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갇힌 자’ 라고 표현했다(23절).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투옥되어 감옥에 같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감옥에서 바울을 보필함으로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에바브라는 자유롭게 왕래하며 골로새교회의 소식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여행 중에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아주었다(골4:14). 바울은 이런 친구들이 많았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들이 사랑과 호의에 감사하여 그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다. 바울은 편지의 맺음말 부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수신자에 대해서 축도를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였다(25절).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에바브라처럼 ‘갇힌 자’ 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 일관된 사랑과 의리를 지키며 살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는가? 지도자가 우리 이름을 그의 영혼에서 지울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감동을 주는 동역을 하였는가?

11월3일(수)/히1:1~14(1)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1절).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말씀하셨다(2절).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2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체시다(3절).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움직이고 계시다(3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것을 방지해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계신다(3절).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도 예수님의 몫이다(3절).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자기의 한번의 희생으로 대신 지불 완료했으며 끊임없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다.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3절). 거기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재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단의 고발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며 사랑의 변호를 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보호와 관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이다.

11월4일(화)/히1:1~14 (2)

**제목: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나며 우월한 분이라고 나타낸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역할 혹은 중보 역할 혹은 연락관 역할 하는 존재로 믿었다(7절,14절). 이런 천사론이 넓게 퍼져나갈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였다(6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보다 더 나은 예수님 소개방법은 없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사의 경배를 받을 자이다(5~6절). 천사는 시중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왕권은 영원무궁하며 그의 지팡이는 정의의 지팡이이며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파트너로 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7~10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 한분 외의 그 어떤 존재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천사가 나와 동행한다고 해도 들뜨고 황홀한 일인데 내가 천사가 경배하는 예수님의 호위를 받고 있다니 나는 얼마나 신나고 멋있는 사람인가?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